

가족여가 유형이 가족체계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녀교육기의 도시가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Factors of Family Leisures on Family Intra-system Dynamics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지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태진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최보아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

Professor : Chi, Young-Sook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fellow : Lee, Tae-Jin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

Doctoral Course : Choi, Bo-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ctors of family leisures on family intra-system dynamics and quality of family life. A total 309 questionnaires was analyzed from married men and women of school-age families. Factors of family leisures were classified in 'education oriented', 'hobby oriented', 'social oriented' and 'family oriented' in the study ahead.(Refer to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9(2).)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family intra-system dynamics was classified 'individual progress', 'sentimental stability', 'interaction' and 'management efficiency'.

Second, the group that participated more in 'social oriented' and less in 'family oriented' activities had higher level of 'individual progress'. The group that participated less in 'social oriented' and more in 'education oriented' activities had higher level of 'sentimental stability'. The group that participated more in 'education oriented' activities had higher level of 'interaction' and 'management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as above, we suggest people need to overcome 'a mental panic' through the family leisure. And we need to develop concern with family leisure as a practical learning.

▲ 주요어(key words) : 가족여가(family leisure), 가족체계(family system), 가족체계역동성(family intra-system dynamics)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가정이 가족들의 구성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와 함께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대는 가족 가치의 변화와 가족원의 분산을 촉진함으로써 가정이라는 공동체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가족해체 현상으로 이어지는 시련과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화를 촉진하고 윤리성을 마비시키기도 하며 다른 가족원의 소외를 가져오는 단절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날 “가족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라는 말이 이러한 가정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가정이라는 공동체(gemeinschaft)는 구성원의 공간적 공유와 빈번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라는 느낌(we-feeling)을 키우고 이타적 헌신감정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가정 교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성장을 도우며,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복지 단위가 되는 일차적 생활체인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현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커다란 소용돌이이며 도전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적응과 대처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의도적 노력이 절실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본 연구는 여가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가족원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증대하는 여가욕구의 방향을 좀 더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음으로서 여가의 일탈화, 무절제한 상업주의적 오락의 심화, 쾌락주의적 여가 형태로의 탈선을 예방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가활동은 개인에게 있어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아성취 내지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부족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현대사회 속에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제공해 준다(이정우 외, 1997).

가족단위의 여가생활은 가족의 심리적 만족, 가정의 안정성과 결속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Orthner & Manaeni, 1990 재인용), 결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족들이 여가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Hill, 1988 재인용). 그렇다면 가족집단을 여가단위로 하는 가족여가는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과 공동체적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됨으로서 가족으로서의 내부체계를 보다 안정되게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들의 원활한 활동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교육기에 가족과의 여가경험은 그 후의 개인여가활동이나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Neulinger, 1974 ; 노재준, 1996) 결과로 볼 때 가족여가활동이 주는 생활의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고 또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들은 자녀교육기에 있는 도시가정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여가 활동을 파악하고 유형화한 바 있다(지영숙·이태진, 2001). 그 결과 교육체험지향활동, 취미지향활동, 사회친목지향활동, 가정지향활동으로 명명,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이 갖는 여러 변인들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그의 후속 연구로서 가족여가활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족체계 내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생활이라는 통합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적 여가와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여가활동유형

이제까지의 가족여가활동의 유형은 네 가지방법으로 구분되어졌다. 즉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빈도, 여가활동을 통하여 충족되는 욕구의 특성, 여가활동의 성격을 판단하는 인식의 차원에 근거한 방법, 상호작용정도와 공유시간 등의 개념적 분류(김외숙, 1993)에 의해서였다.

우선 참여빈도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대도시 주민의 여가활동을 스포츠건강활동, 취미교양활동, 행사관광활동, 감상 관람활동으로 유형화하였으며(김종환, 1996), 20대와 30대의 도시민을 대상으로는 참여정도에 따라 자기개발활동형, 가정지향형, 종교사회참여형, 사교형, 소일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김상무 외, 1997). 또한 여가를 통해 충족되는 욕구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로서는 휴식형, 기분전환형, 자기개발형으로 분류(Dumazedier, 1962, 재인용)하였으며, 심리적 체험의 내용을 탐색적으로 알아본 뒤 활동지향적 체험, 사회지향적 체험, 환경지향적 체험으로 유형화하기도 하였다(성영신 외, 1996).

인식의 차원에 근거하여 전업주부의 여가활동을 적극적인 여가활동과 소극적인 여가활동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며(한경미, 1995), 상호작용과 공유시간에 따라서 공유활동(joint activity), 병행활동(paeallel activity), 개별활동(individual activity)으로 유형화하기도 하였다(Orthner, 1974). 위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지영숙·이태진(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여가활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여가활동에의 참여빈도 외에 가족여가 장애, 가족여가 동기, 시설만족도 등을 첨가하여 여가활동을 측정하고, 그 활동들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들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였다(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권 (2) pp153-165).

위 연구의 결과 30문항의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4가지 활동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문화재, 유적지 여행, 박물관 미술관 가기, 놀이터 가기, 놀이동산, 동화책 장난감 공놀이, 산책 등산 소풍가기, 체조 각종 운동하기로서 “교육체험지향활동”이라 명명하였다. 다음 유형은 댄스하기, 낚시하기, 장기 화투 바둑, 노래방가기, 가족신문 홈페이지 만들기, 가족주말농장. 계모임, 음식만들기 등

으로서 “취미지향활동”이다. 세번째 유형은 사회봉사활동, 자원 봉사, 스포츠관람, 종교활동, 음악감상 악기연주, 영화관 연극 공연장가기, 골프하기 등으로서 “사회친목지향활동”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네번째 유형은 드라이브하기, 대화하기, 외식하기, 비디오보기, 텔레비전보기, 장보기, 친척집 방문, 컴퓨터 오락 인터넷 등을 묶어서 “가정지향적 활동”이라 명명하였다.

위의 유형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소득수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여가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대상자가 “가족의 화목” 그리고 “기분전환”을 위해서라고 응답하므로써 이는 가족여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일차적으로 화목함에 있고 개별적으로는 기분전환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가족체계 역동성

오늘날 가정의 현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체계론적 접근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체계론은 어떠한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하는데에도 유효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론적인 관점을 통해 가족생활을 보는 것은 가족생활의 역동성과 생활의 전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체계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집합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 개념이 형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 역시 가족원의 삶의 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하는 사회·심리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임정빈 외, 2002). 가족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변환하며 가정 특유의 내부환경을 만든다. 또한 가족은 그를 둘러싼 근접환경, 광역환경들과 상호작용하는 보다 큰 통합체계로서 기능하게 된다.

각각의 가족단위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체계적 관점에서 보듯이 가족체계는 전체성을 갖는 총체적 개념이면서 그 체계의 특성은 구성원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의 차원을 통합하고 기능성이 포함되면서 역동성을 발휘한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구성원은 상호작용하여 체계의 역동성인 응집성, 적응력, 기능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들 네 가지 차원에 대한 정의와 생활 속에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Deacon & Firebaugh, 1988 ; 임정빈 외, 2002).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관계이다. 그런데 응집성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다. 가족원들이 응집의 패턴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의사소통 그 자체 이상의 것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 ‘적응력’은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역할 규칙을 변화시키는 가족조직체의 힘이고 가족원의 능력이다. 효과적인 적

응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미의 공유에 달려있으며 어느 정도의 적응이 또는 자기변화의 가능성에 따라서 그 가족원들의 행동과 전체로서의 체계행동은 규제된다고 할 수 있다.

‘기능성’은 요구를 예상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가족원의 능력이다. 기능성은 가족집단의 전반적인 욕구와 흥미를 지원하는 매일의 활동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응집성과 적응력이 원활하면 기능성도 더욱 발전하게 된다.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족원의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 욕구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 등은 그 목적에 적합한 자원을 선택,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음으로서 관리활동에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타인의 마음의 의미를 생성하게 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적응력, 응집성, 그리고 기능성에 중요한 촉진 요소가 된다. 종합하건데 모든 가정은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와 체계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상황에 의하여 가족전체 또는 개별구성원은 끊임없이 발달하는 진화적 특성을 갖는다. 이 때 응집성이 갖는 유대는 체계의 통합성을 제공하고, 적응력은 역동적인 반응과 변화를 제공하여 이해를 촉진시키며, 기능성은 상황에 대해 효율적인 행동으로 대처토록 한다. 의사소통은 이들에 기여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도 위의 4가지 차원에 근거하여 응집성차원은 상호의존, 믿음, 소속감, 상호존중 등의 내용으로, 적응력 차원은 개인의 자유, 의사표현, 서로에게 배우기, 문제해결용이 등의 내용으로, 기능성차원은 자원을 계획하고 능률적·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생산성 증대 등의 내용으로, 의사소통차원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상호이해, 생활의 활력 등의 내용으로 개념화하여 26개의 문항을 만들고(별첨) 가족체계 역동성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차원들은 체계 역동성의 공동상승기제(synergistic mechanism)를 통하여 가족은 전체가 각 부분의 단순합보다 커지는 체계가 되는 것이다. 이는 건전한 가족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이고, 그 기제로서 가족여가는 가족체계 역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 또한 개인적 삶에 많은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가활동이 가족단위 혹은 부부단위로, 또는 부모 자녀의 단위로 이루어질 때, 그 과정과 결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지영숙 외, 1999). 즉, 가족의 여가활동은 가족의 이해와 행복을 가족공동의 것으로 만들며, 가족에게 혼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주게 된다. 또한 가족으로 존중되고 안심과 신뢰의 배경을 만드는 소속감을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은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능력 개발, 자아실현 등 여가활동 본래의 기능 이외에 특유의 효율성을 발휘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여가활동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여가활동에 비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창출된 긍정

적 에너지는 가족원 개인에게는 활력소가 되며 가정적으로는 자원이 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Horna, 1989), 자녀와 함께 여가를 보내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능력과 관심을 개발시켜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자극을 주어 그들이 활동적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다. 고갑준(1998)의 연구에서 보면, 가족 복지적 차원에서 가족여가는 보다 발전적이고 화목한 가족관계형성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을 통하여 가족여가와 가족 체계 역동성을 관련시켜보면, 가족여가는 가장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가족성원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상호 이해와 상호의존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고, 심리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로움과 본질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생활의 활력소로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적 의미에서 가치관 전달의 기회로 서로의 목표를 인정하거나 공동체적인 사회성 훈련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학이 추구하는 가족적 삶의 질 향상 내지 건전한 가정의 육성을 위해서는 가족생활체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하고 그 필요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가족여가는 개인적·가족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가정의 가족체계 역동성 요소는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도시가정의 가족여가활동유형은 가족체계 역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1) 가족체계 역동성의 구성

가족과의 생활에 관한 영역의 문항으로 지영숙 외(1999)의 가족여가의 생활적 의미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우선 응집성 차원은 상호의존, 믿음, 소속감, 상호존중 등으로 구분하고, 적응력 차원은 개인의 자유, 의사표현, 서로에게 배우기, 문제해결용이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능성차원은 자원을 계획하고 능률적·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생산성 증대 등으로, 의사소통차원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상호이해, 생활의 활력 등으로 구분하여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작성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런 편이다'에 4점을 '그런 편이

다'에 3점을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을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1점을 주어 4점 척도로 구성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체계 역동성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문항내용이 반역적 표현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역으로 점수를 주었다.

<표 1> 가족체계 역동성 문항

문	항
1.	우리가정은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
2.	우리가정은 상호이해가 잘된다.
3.	우리가정은 믿음이 있다.
4.	우리가정은 의사표현이 어렵다.
5.	우리가정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6.	우리가정은 소속감, 일체감이 강하다.
7.	우리가정은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있다.
8.	우리(나)의 생활은 활력이 있다.
9.	우리(나)는 가정의 일들을 즐겁게 한다.
10.	우리는 가족여가에 드는 경제적 지출이 부담스럽다.
11.	우리가정은 나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12.	우리가정은 문제해결이 용이하다.
13.	우리가정은 개인의 자유가 없는 편이다.
14.	우리가정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
15.	우리가정에서는 개인이 존중된다.
16.	우리가정은 개인적 자기개발의 기회가 별로 없다.
17.	우리가정은 유우머 감각이 있다.
18.	우리가정은 서로 배움이 있다.
19.	우리가정은 타인을 배려한다.
20.	우리가정은 책임감이 부족하다.
21.	우리 가정의 여가활동은 학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22.	우리가정은 도덕적 삶에 도움이 된다.
23.	우리가정은 시간을 계획한다.
24.	우리가정은 일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25.	우리가정은 일들을 나누어 한다
26.	우리가정은 의사결정이 어렵다.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에 대한 생활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바 있는 측정도구에(이종길(1992), 진봉국(1993), 김성희(1996)) 근거하였다. 그의 영역은 가정에서의 전반적인 역할, 가족관계, 가족간의 대화, 가사노동, 여가활동, 경제적 생활, 물질적 생활 과 개인 생활에 대한 만족은 Diener, Emmonson, Larson, Griffith(1985)가 개발한 생활만족지수(life satisfaction index)를 한국어로 번역한 (Won, 1989) 생활만족문항들을 합쳐서 12개의 항목이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에 4점을 '만족스럽다'에 3점을 '불만족스럽다'에 2점을 '매우 불만족스럽다'에 1점을 주어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2개 문항의 합으로 생활만족도를 측정했으며 점수가 클수록 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Cronbach의 알파(α)계수가 .8570이다.

2) 자료수집과정

조사의 범위는 서울 및 근교도시로 제한하여 첫 자녀가 학령

전기 이상 고등학생까지의 기존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0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수정 보완한 질문지로 본 조사는 2000년 7월 18일부터 8월 29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조사대상자에게 직접배부 또는 면접을 겸하여 설문지 배포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되었고 총 400부 중 응답내용이 모호한 것과 중복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인 빈도분포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또, 가족여가활동의 유형과 가족체계역동성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여가활동 유형이 가족체계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자료분석은 모두 SPSS Win(version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가족체계 역동성 요소

연구문제 1의 도시가정의 가족체계역동성은 어떠한 요소로 구조화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최도로 사용되어진 26개의 문항은 ‘우리가정은 어떠하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요소들의 분류된 문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지 문항으로 볼 때 요인1은 13번 개인의 자유, 16번 개인적 자기개발의 기회, 26번 의사결정, 5번 공평, 4번 의사표현, 20번 책임감 부족, 21번 가족여가의 자녀 학업 영향, 10번 가족여가 지출 부담의 문항이었다. 이들은 개인적 요구의 성취 성향이 크고 자기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다. 이에 “자아개발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2는 3번 믿음, 11번 스트레스 해소, 12번 문제해결 용이, 22번 도덕적 삶에 도움, 6번 소속감, 일체감, 19번 타인을 배려, 18번 서로에게 배움, 17번 유우머 감각, 15번 개인이 존중됨의 문항들이었다. 이들은 현대가정의 중요기능이며 또한 가정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서안정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9번 가정 일을 즐겁게, 1번 의사소통을 많이, 8번 활력, 2번 상호이해, 14번 마음의 여유, 11번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문항들이다. 이들은 가족원들의 상호성과 관련이 큰 부분들이다. 이에 “상호작용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4는 24번 일에 우선 순위, 23번 시간을 계획, 25번 일들을 나누어 함의 문항들이었다. 이들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능력과 관련이 큰 부분들이다. 이에 “관리능률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별로 고유치와 전체 변량중 백분율을 보면 자아개발성이 14.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서안정성,

상호작용성, 관리능률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요인에 대한 누적 변량의 백분율을 보면 48.61%로서 가족체계 역동성의 구성요인으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가족체계 역동성의 요소 각각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자아개발성은 8문항으로 $\alpha=.64$, 정서안정성은 9문항으로 $\alpha=.82$, 상호작용성은 6문항으로 $\alpha=.81$, 관리능률성은 3문항으로 $\alpha=.65$ 이다.

전술한 이론적 배경에서의 가족체계 역동성 네 차원의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의 가족체계역동성의 각 요소들이 갖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아개발성”은 개인의 자유, 공평성 여부, 책임감, 의사표현, 자기개발의 기회 등과 관계되며 오늘날 가정이 갖는 체계적인 특성에서 개인의 개발과 발전에 관련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역할 규칙을 변화시키는 가정조직체의 환경이자 개인의 자기변화 가능성을 의미함으로써 ‘적응력’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서안정성”은 가족으로 존중되고, 안심과 신뢰의 배경을 만드는 소속감을 양성하여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을 증진시킨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믿음과 가족원의 스트레스 해소나 유우머,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서안정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관계인 응집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2> 가족체계 역동성의 요소

문항	요인부하값				요인명칭
	1	2	3	4	
개인의 자유	.72	-.21	-.08	.05	자아개발성
자기개발의 기회	.71	-.18	-.03	-.15	
의사결정	.67	-.19	-.17	-.13	
공평	.67	-.16	-.34	.07	
의사표현	.60	-.01	-.38	.06	
책임감 부족	.57	-.30	-.08	-.27	
자녀의 학업	.54	-.13	.15	-.30	
경제적 지출부담	.35	.01	-.14	.11	정서안정성
믿음	-.20	.66	.26	.13	
스트레스해소	-.12	.65	.23	-.13	
문제해결용이	-.17	.64	.35	-.04	
도덕적 삶에 도움	-.06	.61	.04	.17	
소속감, 일체감	-.12	.61	.09	.20	
타인을 배려	-.29	.50	.13	.23	
서로에게 배움	-.30	.50	.23	.35	상호작용성
유우머	-.07	.45	.16	.07	
개인이 존중됨	-.35	.39	.34	.21	
가정일을즐겁게	-.05	.22	.72	.16	
의사소통 많이	-.19	.22	.71	.17	
활력	-.09	.18	.68	.18	
상호이해	-.20	.40	.62	.17	
마음의 여유	-.35	.22	.48	.07	관리능률성
원하는 것 안다	-.22	.27	.38	.24	
일의 우선순위	-.05	.12	.08	.78	
시간을 계획	-.03	.14	.30	.67	
일들 나누어함	-.07	.12	.20	.62	
아이젠	3.69	3.59	3.20	2.16	
h^2	14.19	13.80	12.29	8.33	
전체변량	48.61				

“상호작용성”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가족원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일의 해결에 있어서도 활력을 가지고 임하게 되며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 또한 인적하위체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타인의 마음의 의미를 생성하게 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사용하고 적응력, 응집성, 그리고 기능성에 중요한 촉진 요소가 된다는 ‘의사소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관리능률성”은 다른 기능성에 비해 설명력은 다소 작지만 가정체계요소인 관리적 하위체계의 요소들이 인적·심리적 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함께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개인 및 가정의 요구를 예상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분배, 사용하는 가족원의 능력이 되는 ‘기능성’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체계 역동성의 요소는 자아개발성, 정서안정성, 상호작용성, 관리능률성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적 역동성인 응집성, 적응력, 기능성, 의사소통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가족체계 역동성 요소의 이론적 틀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가족여가활동유형이 가족체계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의 도시가정의 가족여가활동유형은 가족체계 역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피하도록 하였다.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표 3>과 같다.

<표 3> 가족여가 활동유형간의 상관관계

	교육체험 지향활동	취미 지향활동	사회친목 지향활동	가정 지향활동
교육체험지향 활동	1.00			
취미지향활동	.37**	1.00		
사회친목지향 활동	.26**	.46**	1.00	
가정지향활동	.42**	.32**	.30**	1.00

** p<.01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력과 영향변인의 차이만을 보기 위해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족여가활동유형이 가족체계 역동성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자아개발성과 정서안정성, 상호작용성, 관리능률성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가족여가활동은 자아개발성을 7%, 관리능률성을 6%, 정서안정성과 상호작용성을 각각 5% 씩 설명해준다. 이것은 가족여가활동이 가정생활체계 각각 요소에 대해서 갖는 설

명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가정이라는 생활체는 전체성을 갖는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들 각 요소가 상호의존하여 나타나는 상승기제로서의 효과는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4> 가족여가활동유형이 가족체계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발성		정서안정성		상호작용성		관리능률성	
	b	β	b	β	b	β	b	β
교육체험지향 활동	-.10	-.20**	.06	.13*	.07	.14*	.21	.15*
취미지향활동	.07	.09	.03	.05	.05	.07	.21	.10
사회친목 지향활동	.08	.15*	-.06	-.13*	-.02	-.03	-.14	-.10
가정지향활동	-.10	-.13*	.08	.11	.07	.09	.23	.11
상수	2.43		2.57		2.39		4.61	
R ²	.07		.05		.05		.06	
F	5.96***		3.60**		4.07**		5.21***	

* p<.05, ** p<.01, *** p<.001

자아개발성에는 교육체험지향활동($\beta=-.20$, $p<.01$), 사회친목지향활동($\beta=.15$, $p<.05$), 가정지향활동($\beta=-.13$, $p<.05$)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체험지향활동을 적게 할수록, 사회친목지향활동을 많이 할수록, 가정지향활동을 적게 할수록 자아개발성은 더 향상됨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의 경우 자아개발성은 교육체험이나 가정지향적 활동에서 보다 대인관계를 보다 넓히는 사회친목, 봉사활동 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정서안정성에서는 교육체험지향활동($\beta=.13$, $p<.05$), 사회친목지향활동($\beta=-.13$, $p<.05$)이 같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사회친목지향활동은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가족원으로 존중되고, 안심과 신뢰의 배경을 만드는 소속감,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정서안정성은 가족원이 함께 공유하고 느끼는 체험활동을 함으로서 가족원에게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대로 사회지향적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가족체계원의 정서안정에는 부정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성의 경우 교육체험지향활동($\beta=.14$, $p<.05$)이 유의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원 서로가 특히 자녀와 의도적으로 공유를 피하는 체험과 교육적 활동을 통해 가족원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며 가족원의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가족원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성에 긍정적인 효과임을 말해준다.

관리능률성에는 교육체험지향활동($\beta=.15$,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정의 요구를 예상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가족원의 능력이 되는 관리능률성은 가족원이 함께 교육·체험활동을 함으로서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체험지향활동은 관리적인

기술 즉 여가시간에 대해 계획을 미리 세우거나 가족원끼리 일을 분담하거나 협동하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능력을 키워주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생활체계에 각각의 가족여가활동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건전한 가정생활체를 만드는 가족체계 역동성 수준을 향상하려면, 어느 생활주기에서 어떤 유형의 가족여가활동이 가정생활체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의미있게 살펴서 가족여가활동을 선택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전기와 초·중고등학령기 자녀를 둔 자녀교육기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체계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계 역동성에 대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자아개발성, 정서안정성, 상호작용성, 관리능률성의 4가지 요소로 구조화되었다. 각 요인들이 갖는 명칭과 성향을 보면 “자아개발성”은 개인의 자유, 공평성 여부, 의사의 표현, 자기개발의 기회 등과 관련하는 특성을 가지며 “정서안정성”은 가족원으로 존중되고, 안심과 신뢰의 배경을 만드는 소속감을 양성하여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의 증진과 관련된다. “상호작용성”은 가족원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일의 해결에 있어서도 활력을 가지고 임하게 되며 상호 이해와 관련되며, “관리능률성”은 계획, 분담, 우선순위 등과 관련되는 성향을 나타낸다.

둘째, 가족여가활동유형(교육체험, 취미, 사회친목, 가정지향)이 가족체계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체계역동성(4가지) 요소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각각의 요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가족여가유형에 따라서는 교육체험지향활동을 적게 할수록, 사회친목지향활동을 많이 할수록, 가정지향활동을 적게 할수록 가족의 자아개발성 수준이 더 향상되었고, 교육체험지향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친목지향활동을 적게 할수록 정서안정성 수준이 더 향상되었다. 그리고 교육체험지향활동을 많이 할수록 상호작용성과 관리능률성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가족이라는 생활체계는 자아개발성, 정서안정성, 상호작용성, 관리능률성과 같은 역동적 요소가 서로 관련되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는 중요한 내부환경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정이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의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족여가는 단순히 참여의 의미

를 넘어서 개인여가에서는 맞볼 수 없는 가정이라는 공동생활체에 역동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검증된 바, 특히 자녀교육기 가정은 상호작용성, 정서안정성, 관리능률성을 증진시켜준다고 하였고, 특히 “교육체험지향활동”에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참여의 폭을 넓힌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때 여러 유형의 가족여가활동은 가족체계 역동성 요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가족여가활동유형에 따른 긍정적인 가족체계 역동성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생활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실천 학문으로서 가족여가에 대한 관심을 증대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한 가족여가생활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과 그에 필요한 자세에 대해 언급해보기로 한다.

오늘날 노동과 분리된 근대적 여가관은 고도의 기술 발달과 더불어 여가중시의 현대적 여가관으로 바뀌고 있으며, 여가의 대중화시대와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시대 즉, 패밀리 레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가육구가 팽배해 지면서 소비행위로서의 여가행태, 비윤리적 여가행태, 파행적 여가행태, 과시적 여가행태 등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여가추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 여가생활을 위한 자원이 전혀 없다면 여가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지만 오히려 많은 시간과 금전은 과시적, 전시적 여가로 또 다른 계층의 여가소외 현상을 낳게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몇몇 프로그램은 특정 행사에만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내용면에서도 보편화,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 시점에서 시작된 5일근무제의 시행은 자칫 위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가정, 학교, 국가적 차원에서 몇 가지 노력이 요구된다.

현대 가정은 가족원의 분산으로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구성원의 개인위주의 여가생활을 자제하고 서로 융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의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 함께 여가를 통해서 체계역동성을 증가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족단위 활동들에 우선순위를 두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부담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가정으로서의 구심력을 회복하고 다른 가족원의 소외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족여가활동의 조사과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집단이(4.9%) 가장 적었으므로 교육기에 있는 아버지의 역할면에서도 가족여가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특히 교육체험지향적 활동으로 그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에서는 건전하고 활발한 가족여가생활을 위해 직접적인

고 실천 가능한 가족여가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며 정보제공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국가에서는 건전한 가족여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역 사회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보와 개방에 힘쓰고 가족여가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특히 여가생활이 소득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볼 때 전 국민들의 보다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참여를 보장한 사회 정책이 요구된다.

오늘의 현실에서 건전한 방향의 가족여가활동을 위해서는 교육적, 정책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가족원 모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다듬고 풍요롭게 하며 담당할 수 있도록 주체적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추후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여가활동이 가정생활체계에 가져다 주는 의미를 연구함에 있어 응답자를 부모로 하였는데, 보다 질적인 접근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모두를 조사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학령전 및 교육기 가정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모든 가정의 가족여가활동유형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가족여가활동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족주기의 모든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부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정자원도 달라지고 노후설계와 관련하여 가족여가생활에 대한 의미는 더 크고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현대 가정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 역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그의 증진을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 역동성을 중심으로 폭넓은 대안들에 대한 실천적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 2002년 3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8월 21일

【참 고 문 헌】

- 고갑준(1998). 가족여가활동을 통한 가족복지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논문.
- 스티븐 코비 김경섭 역(1998).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김영사.
- 김명자(1995). 도시 중년기 여성의 여가와 여가선용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 서울 : 한올아카데미.
- 김상무·박정아(1997). 여가활동이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 관광경영학회지 논문집 5-22.
- 김성희(1996). 도시거주 가정주부의 여가계약과 여가만족, 가족 기능, 생활만족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의숙·이기춘(1993).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장애지각과 여가활동참여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208-218.
- 김종환(1996). 생애주기에 따른 대도시 주민의 여가활동유형분석.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재준(1996). 생활주기에 따른 여가태도 발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숙재(1996a). 생활시간연구. 서울: 학지사.
- _____ (1996b). 새로보는 가정경영. 학지사.
- 성영신·고동우·정준호(1996). 여가의 심리적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17-40.
- 이승미(1996).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63-75
- 이정우 외 공저(1997). 최신 가정경영학. 수학사.
- 이태진(1992). 도시주민의 생활욕구 및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지영숙 외(2002). 가정관리학. 신정.
- 지영숙(1975). 한국 도시주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의식에 대한 연구. 성대논문집 21권. 23-41.
- _____ (1998). 현대가족생활설계론. 학지사.
- _____ 외(1999). 가족여가의 생활적 의미 연구, 한국가족 자원경영학회지 3(1). 83-94
- _____ 이태진(2001). 도시가정의 가족여가유형 -자녀교육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9(2), 153-165.
- 진봉국(1993).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66-84
-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3).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55-68.
- _____ (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4(2). 71-84.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2nd*. Allyn and Bacon.
- Holman, T. B & Epperson, A(1984). Family Leisure :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research recommendation. *Journal of leisure reserach* 16(4), 277-294.
- Orthner, D.K(1974).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interactions. Dissertation of Florida State University.
- _____ & Manaeni (1990).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91-102.
- Snyder, D. K.(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Feb. 11*. 813-823.
- 松田義幸(마츠다요시유키)(1981). 現代餘暇の社會學. 東京: 誠文堂.